



F-35B 4대, 죽음의 백조 2대 한반도 출격 18일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2대(왼쪽 위)와 해병대 소속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오른쪽 위)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일본 오키나와와 이와쿠니에서 각각 날아온 미군기들은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훈련용 폭탄을 투하했다. 이날 동원된 비행기의 가격은 16억 달러(약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사진 공군]

## 수사 인력 120명 ‘수퍼 공수처’ 예고

법무·검찰개혁위 설치 권고안  
검·경 위에 ‘옥상옥’ 권력 우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공소를 담당하며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 정리와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수정될 수 있지만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허무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구상이어서 향후 수사구조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는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판사·검사·경찰공무원(경무관급 이상)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둔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기는 3년(중임 불가)이며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공수처장·차장·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1년 내에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30~50인)와 수사관(50~70인) 등 최대 120여 명으로 공수처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수퍼 공수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옥상옥’ 구조에 따른 검·경과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되 검찰 등과 경쟁적 협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 관계기사 6면

## ‘중입자 미사일’ 암과 전쟁 20년 뒤 끝낸다

52인류 10대 난제에 도전하다 2 암 정복

방사선으로 암세포 추적해 제거  
20년 뒤엔 생존율 80% 이상 기대

혈관·약물 등 치료 기술도 혁신  
의학계 “에이즈처럼 정복 가능해”

서울 대치동에 사는 박영숙(62)씨는 2012년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좌절했다. 암이 번져 수술은 불가능했다. 대신 고통스러운 항암·방사선 치료가 이어졌다. ‘암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전남 담양에 내려가 전원생활도 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마침 일본에 방사선의 일종인 중입자선으로 암세포를 표적 치료하는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지막 선택이었다.

일본 지바(千葉)현 이나게(稲毛)구에 있는 일본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에서 3주 동안 8차례의 중입자선 치료를 받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암조직은 모두 사라졌고, 더는 전이도 진행되지 않았다. 박씨는 “별 통증 없이 수술이 끝났다. 상태가 많이 호전돼 식욕이 당길 정도”라고 말했다.

인류가 지난 4000여 년간 암과 벌인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시작된 지 60년이 흐른 지금, 암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고민이 중입자나 면역·혈관 치료 등 혁신적 기술 진보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암은 기원전 2625년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 적힌 유방암이 최초 기록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암에 걸리고도 살아남은 사람의 비율은 1993~95년

38.3%(5년 기준)에 불과했다. 2010~2014년에는 70.3%로 갑절 가까이 뛰었다. 20년 전만 해도 걸리면 사망하는 질병이었지만 이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암을 이겨 낸다.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새로운 치료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년 뒤엔 암도 에이즈처럼 인류에게 정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2년에 1%포인트씩 증가하는데 20년 뒤면 8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학계에서는 생존율 80%면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보고 있다.

암 유전자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신체의 면역체계를 복원해 암을 무찌르는 연구도 한창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환자의 몸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해 암을 사멸시키는 치료법부터 다양한 입자선을 조합해 암을 퇴치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표적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뤄지고 있다. 신체에 부담을 작게 주면서 암이 스스로 붕괴하게끔 만드는 착한 치료법들이다. 국립암센터의 김태현 교수는 “외과 수술과 방사선·약물·혈관 치료 등 모든 암 치료법은 상호 보완적이라 한 기술의 발전이 다른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암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다. 한국에서는 83년부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이다. 또 암을 극복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암 환자의 연령대도 20~30대로 넓어졌다. 김열홍 이사장은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의료·복지 시스템 구축과 암 환자가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 관계시리즈 4, 5면



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 12면



송영무의 문정인 비판, 안보라인 집안싸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향해 “개탄스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집안싸움’이 벌어졌다. ▶▶▶ 3면



남자의 계절 가을엔  
꽃게도 수놓이 제맛

▶▶▶ 20면

## GRAND OPENING

성공을 위한 발걸음. 에스.티. 듀폰 슈즈

S.T. Dupont  
CLASSICS